

담당\_홍선화

## Prism

2005년 제1차 이사회 개최

### 올해 사업계획 등 11개 안건 처리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는 지난 1월 14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피카로그릴에서 2005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조병천 수석 부회장, 김성환·박찬회·신동균·유현식·김옥중 부회장 등 회장단과 이사회가 참석해 열린 토의를 펼쳤고, 지회장들이 참관해 좋은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김영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관 건립이라는 큰 사업 완수를 위해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다'며 이사회들과 지회장에게 감사의 말을 먼저 전하고 이사회를 시작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돼 각 안건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이사진에게 월드페이스트리컵피인십, 전국기능경기대회 시연 종목 출전, (사)대한제과협회회관 개관식 등 2004년 협회 사업 실적의 보고가 이루어진 다음 중앙회 회계의 수지 결산과 2005년 예산안을 심의·승인했다.

이어서 (사)대한제과협회회관 건립 기금 현황 건에 대해 보고받고 회비 및 구독료 미납금 결산처분, 광고료 미납금 결산처분, 월간 <베이커리> 구독료 인상, 지부 창립 및 폐쇄지부 인준, 정부표창 계획 및 수상자 선정보고, 임원선거 관리위원 위촉의 세 부사항에 대해 논의가 벌어졌다.

특히 회비 및 월간 <베이커리> 구독료 미납금 결산 처분 사항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대다수 이사진은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는 결산 처분이 가능하지만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핑계가 안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앞으로 각 지회가 회비 및 구독료를 빠짐없이 납입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우편료와 종이값 등 계속되는 원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간 <베이커리>에 대해서는 소폭 인상을 합의하는 한편 회원들에게는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띄워 줄 것을 당부했다.

2005년 임원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 공명선거 위해 선거 관리, 감시활동 돌입

지난 1월 18일 오후 2시 (사)대한제과협회회관 회의실에서 제 1차 임원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2월로 임기가 끝나는 회장 임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원 선출을 위해 오는 2월 24일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선거 및 개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활동하게 된다. 선거관리규정 제 1조의 규정에 의해 이사회에서 임원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조병천 수석 부회장, 유현식(위임)·박찬회 부회장, 윤충기·조계중·홍중식·주재근 이사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 유현식 부회장, 부위원장에 윤충기 이사, 간사에 이경미 대리를 선출하는 한편 앞으로 임원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임원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선거운동을 감시하게 된다. 각 후보자는 2월 4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은 중앙회에서 발송하게 된다. 또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방문은 일체 허락되지 않고 향응 제공도 금지된다. 제2차 임원선거관리위원회는 단일후보가 나왔을 경우 2월 3일, 복수후보가 등록할 경우 2월 4일에 개최한다.

2004년 중앙회 예산결산 감사

### 회관건립기금 및 사업실적 예산결산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는 2005년 1월 14일 제1차 이사회를 앞두고 2005년 1월 11일에 안승호 감사로부터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와 예산결산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이른 아침부터 2004년 회관건립기금 지출 내역을 비롯한 사업 실적과 예산결산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안승호 감사는 예년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행정 업무의 체계화가 미흡한 점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앞으로 안승호 감사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했다.

월드페이스트리컵대회 한국 대표 선수단 출국

### 홍중흔·최인호·조성훈 선수 '선전' 기대

한국 제과·제빵 대표 선수단이 1월 23~24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2005 월드페이스트리컵' 대회 출전을 위해 1월 16일 오전 에어프랑스 AF 267편을 이용,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김영모 단장을 비롯해 설탕공예 부문 홍중흔 씨, 초콜릿공예 최인호 씨, 아이스카빙 부문 조성훈 씨로 이루어진 한국 대표 선수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과인들이 펼치는 월드페이스트리컵대회에 지난 대회 우승팀인 프랑스를 비롯해 19개 나라와 각축을 벌여 종합 6위를 차지했다.

지난 1월 11일 선수들의 마지막 연습이 있었던 분당 국제제과기술학원에는 조병천 (사)대한제과협회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유현식 한국제과기능협회장, 권상범·박찬회 명장, 서정웅 고문, 박지현 기술본부부위원장, 우원석 기술지도부위원장, 정운용 한국제과기술경영연구협회 부회장, 오병호·위재상 기술지도위원, 김용일 베이커피플러스 사장, 비엔씨월드 장상원 사장 등이 찾아와 격려금을 전달하며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 Local News News

담당\_홍선화

성북지회

## 2005년 시무식 개최



성북지회(지회장 박정만)는 1월 3일 오후 5시 성북지회 사무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2005년 한 해를 시작했다. 지난 10월 11일 현판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던 성북지회는 이날 시무식에서 2005년

도 지부 운영 방안 및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기총회 일정을 4월 7일로 확정했다. 박정만 지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 불황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회원들의 매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회원들의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자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성북지회 임원들이 모두 참석해 높은 출석률을 자랑했다.

인천광역시지회, 남동구지부

## 가슴 훈훈한 불우이웃과 정신장애우 사랑

인천광역시지회와 남동구지부가 '사랑의 빵' 과 성금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인천광역시지회(지회장 조영규)는 지난 11월 24일 회원들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정신장애우 복지시설인 남동장애우종합복합관에 성금 65만 원을 전달했다.

남동구지부(지부장 손일환)는 매달 마지막 날에 '사랑의 빵' 500개를 남동구청 자원봉사센터에 기증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또 연말에는 케이크를 50~60개를 만들어 전달한다. 2001년부터 시작해 5년 동안 이어진 '사랑의 빵' 기증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군포·의왕시지부

## 호두과자시식회 및 사물놀이 개최



군포·의왕시지부(지부장 이관형)는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힘겨워하는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월 10일 토토과자점에서 호두과자시식회와 사물놀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관형 지부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참석해 회원들과 함께 사물놀이를 관람한 뒤 호두과자를 시식하며 회원들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했다. 북·장구·징·팽과리 등 네 가지 민

속타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을 뜻하는 사물놀이는 1978년 '사물놀이'라는 이름으로 결성된 농악연주단체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 빠르게 보급되어 이제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놀이다.

# Prism

오산시·안양시지부

## 한해를 마감하는 '제과인의 밤' 개최



오산시지부와 안양시지부는 한해를 마감하며 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회원들과 돈독한 결속을 다지는 '제과인의 밤'을 개최했다.

오산시지부(지부장 김중구)는 지난 12월 1일 오산동에 위치한 초우정에서 한해를 마감하며 회원들의 결속을 위해 '제과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왼쪽 사진)

올해 처음 열린 이 행사는 지부 살림을 맡아 정신없이 한 해를 보낸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중구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지부 발전에 애쓴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해마다 제과인의 밤을 개최해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회원들과 돈독한 정을 쌓는 시간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중 경기도지회장을 비롯해 경기도지회 각 지부장들이 참석해 오산시지부의 도약을 기원했고, 제과업계 관계자 등 모두 80명이 참석해 즐거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안양시지부(지부장 남기석)가 지난 12월 28일 안양5동에 위치한 카니발부페에서 개최한 '제과인의 밤' 행사에 180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끝났다.(오른쪽 사진)

올해로 11번째 이어진 이 행사에서 남기석 지부장을 비롯해 회원들은 다사다난했던 2004년 한해를 되돌아보는 한편 앞으로 안양시지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며 즐거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남기석 지부장은 "제과업계의 불황이 심화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회원이 많은 데도 지부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점 감사하다. 앞으로도 협회를 통해 협력하고 문제점의 해결책을 찾는다면 제과업계의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다"고 격려했다.

회원들은 서로 친목을 다지는 한편 경기 침체에 대처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양천지회

## 2004년 마무리하는 송년회 개최



양천지회(지회장 이동택)는 지난 12월 7일 신월6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 불황과 함께 폭 떨어진 매출로 유난히 어렵고 힘들었던 2004년 에 지부 행정에 애쓴 임원들과 지부일에 앞장서서 나섰던 회원들과의 돈독한 친목을

쌓기 위해 마련됐다. 양천구청 추계연 구청장을 비롯해 구청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한 이날 행사에 고문들과 회원들이 참석해 제과업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펼치는 한편 서로 격려하며 친목을 다졌다. 이동택 지회장은 "내년도 변함없이 양천지회에 대한 성원과 격려를 부탁한다"며 회원들의 단합을 강조했다.